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 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

김 혜 영
성균관대 의상학과

A Study on Deconstructed Space and Visibility in Clothes - Regarding Hussein Chalayan's Design-

Hye-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rough his geometric design, the Cyprus born fashion designer Hussein Chalayan raises intriguing questions about the very fact of wearing clothes. By purposefully displacing the function of each part of the clothing, such as neck line, hem line, seam, sleeve, etc., Chalayan transforms the meaning of the body that wears clothes, of the human subject as a sovereign possessor of the clothing and the visibility related to fashion. This transformation is achieved by distorting the spaces of his clothing in an unorthodox wa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significance of such a practice can 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relation to the current debate on deconstructionism under way in humanities. Instead of immediately negating the modern frame of ideas and practices, deconstructionism asks what the assumptions for the modern regime of truth is. In this process, things that lead human beings to sovereign master of knowledge and truth such as reason, subject, body and vision are questioned.

In the same context, Chalayan's design not only forces us to rethink the very function of dividing inside and outside by the clothing but also the meaning of boundary operating in numerous sites of modern life. As the human subject is not something pre-given but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ultural representation, to which the clothing belongs, fashion can be evaluated to be an active ingredient of constructing the subject. Therefore, Hussein Chalayan's design is at the cross road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regime of fashion.

Key Words : deconstructed space, visibility, deconstructionism, Hussein Chalayan's design

I. 서론

본고에서는 터키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후세인 칼라얀(Hussein Chalayan)이 자신의 옷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은 점점 더 순수예술을 다루는 예술가와 비슷해져가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의복의 좀 더 근본적인 차원과 연관된 문제이다.

모든 예술활동에는 가장 근본적인 층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사물의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 즉 왜 인간은 알려고 하고, 왜 인간은 있으려고 하는가, 인간은 감각을 통해 이 세계의 물질적 소여(所與, data)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술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그 답의 형태는 긍정적으로(positively)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부정적인(negative) 형태로 주어지는 일이 많다. 그것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술에 있어서 형상이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지만, 동시에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진술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더 넓고 풍부한 사실들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체적인 형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가는 자신이 다루는 형상에 대해 가장 많은 회의를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칼라얀이 자신의 옷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가 오늘날 예술이 제기하는 문제와 같은 주제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칼라얀의 디자인은 옷이라는 구축물의 기능에 과도한 변화를 줌으로써 단순히 좀 더 개성 있는 옷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을 통해 신체를 보여준다는 것, 나아가 그것을 통해 신체의 정체성을 표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문은 의복과 가시성(visibility)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옷은 신체를 가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체를 드러나게도 한다. 그러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라는 문화적 텍스트에 의해 규정된 바대로 드러나게 한다. 그리하여 옷은 신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작용을 가한다. 그것은 신체의 선, 양감, 질감에 대한 조절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복과 신체와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그 사이를 매개하는 문화적 기호, 코드, 주체설정의 효과, 정체성의 구축과 재구축 등에 대한 이론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의복이 그것을 입는 사람의 내면적 심성을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수준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패션에서 논의하는 해체주의도 형태의 해체, 기능의 해체 등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해체의 양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것이 해체하고 있는 정확한 이론적, 담론적 지점에 대한 지적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칼라얀의 옷에 해체주의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소매를 비기능적으로 만든다거나 칼라(collar) 등을 변형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근대 이후로 서구 문명 속에 자리잡아 온 의복과 신체, 의복과 정체성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러한 점에서 칼라얀의 옷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해체주의의 태도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체주의는 서구 근대의 철학, 수학, 물리학 등의 추상적인 사고의 체계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던가 의복 등 여러 가지 감각적인 문화적 표상물을 통해서도 다가왔는데, 해체주의의 목표는 사실, 근대 자체를 부정하는데 있다기보다는 근대적 사고가 어떤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코(M. Foucault)는 서양의 근대가 담론의 권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합리성이라던가 진리 등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도 과학적 담론의 권력,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은, 소위 모세혈관적 권력, 지식을 생산하는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러한 권력은 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는데, 예를 들어 과학적 합리성의 논리는 합리적인 진술 이외의 다른 모든 논리는 자동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패션 디자이너들의 옷에 해체주의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점, 즉 서구의 근대가 의복에 부과한 합리성과 담론의 권력, 배제의 원칙, 이성중심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제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의복과 신체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꿔 말하면 그것은 의복이 어떻게 신체를 규정하고, 나아가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인간을 통제하는 제복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일상적인 기능의 의복들도 인간의 신체를 능률, 활동성, 기능성 등의 가치를 통해 규율 지우고 관리하는 체제로서의 근대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칼라얀의 옷은 의복이 인간의 신체를 규정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 바꿔 놓고 있다. 본고는 해체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푸코(M. Foucault)와 라캉(J. Lacan)의 탈구조적 공간분석과 가시성 이론을 근거로 칼라얀의 옷을 중심으로 그가 의복과 신체의 관계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기존의 인문학에서 논의하는 기호학, 해체주의, 주체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의복에서의 공간과 가시성의 관계는 구체적이고 국지적(local)인 맥락에서 연출해 내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그것이 근대사회에서 주체를 가시화 하는 장치로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만을 서술하고자 할 뿐이다. 아울러 본고는 칼라얀의 작품을 해체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주의가 나타나는 터전(site)으로서 기술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펼치고 있는 틀은 칼라얀의 옷에 나타나고 있는 해체주의적 징후를 읽는 것이다.

II. 의복의 공간과 가시성(visibility)

1. 해체주의와 공간과 가시성의 문제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데카르트(R. Descartes) 이래로 서구적 인식의 중심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중심화, 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적 시선의 구조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해체를 의복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것은 데카르트적 주체의 탈신체적 특성과 연결된다. 즉, 데카르트적 주체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판단력만을 가진 정신적 주체이다. 따라서 근대의 의복은 주체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가리거나, 다른 형태로 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체주의는 의복의 구체적인 형태를 해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인간 주체와 맺는 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J. Derrida)의 초기 저작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의 개념은 "어떻게 철학적 텍스트가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 그 정의를 그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부터 구분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¹⁾ 즉, 해체주의는 서구의 근대적 철학전통이 배제한 것이 무엇이고 포함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따짐으로써 그 인식론적 기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철학적 전통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탈구조적 공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가시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공간과 시선은 전통적으로 상호규정적인 관계에 있다. 둘째, 가시성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 변화의 추이에 따른다. 셋째, 의복은 신체의 가시성을 연출하는 문화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넷째, 신체의 정체성은 가변적이다. 다섯째, 의복에서의 공간과 가시성의 문제는 정체성에 대해 작용한다.

탈구조적 공간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인지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 지점에서 최근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미술사적 연구의 성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연구는 푸코의 규율권력의 시선에 대한 분석과, 라캉의 주체에 대한 해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감옥, 군대, 학교, 병원 등의 근대적인 공간이 어떻게 주체를 형성했으며, 그 와중에서 시선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주체는 어떻게 길 들여지는가에 대해 밝히고 있다.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시성(visibility)이 근대적 주체가 발현되는

중요한 장이라는 점이다. 즉,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에 따르면 주체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이때 본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가시성은 문화의 표상체계 안에서 연출되고, 조절되고, 통제되고, 새로운 코드가 부여되는 복합적인 작용이다. 조나단 크러리(Jonathan Crary)와 마틴 제이(Martin Jay)는 근대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가시성에 대한 조절과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³⁾ 이는 탈구조적인 사고의 체계가 등장함으로써 가능해진 논의이다. 즉 가시성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광학적으로 형성된 어떤 것으로 봄으로써 의복이라든가 다른 문화적 표상물들이 어떻게 가시성을 조절하고 있는가, 인간은 그러한 표상물들을 통해 어떻게 가시성을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의복은 단순히 그것을 디자인한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나 당대에 유행하는 어떤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의 조절, 특히 신체의 가시성을 조절하는 장치(apparatus)이자 자리(site)이다.

본 연구에서 칼라얀의 옷과 가시성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때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이란 옷에서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기존의 공간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신체와의 관계가 창출해내는 공간의 의미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다.

2. 의복의 공간과 정체성

한편 해체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를 통해서이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다루는 주체인 의복은 정체성을 민감하게 다루는 장(field)이다.

인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표상되는(represented) 어떤 것이다. 정체성을 표상(represent)한다는 것은 결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한결 복잡한 구성의 과정이자, 끊임없는 재구성과 소거, 덧씌우기의 과정이 중첩되어 있는 과정이자 자리(site)이다. 그 과정에는 주체를 보여주고, 그 보여질 때의 효과를 조절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남이 제시하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조절하는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체성은 이러한 과정이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성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들은⁴⁾ 정체성이 표상되는 과정을 정지시켜 얻어낸 스테레오타입일 뿐이지, 그것들은 정체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라캉(J. Lacan)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타자의 존재는 자아에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심리분석에서 말하는 자아의 타자성(alterity of the ego)이다. 타자의 입장에서 보고 형성된 자아는, 이후에는 타자와의 비교, 차별성의 인식, 강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강화된다는 것이다.⁵⁾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나르시시즘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울단계인 상상계 속에서 자라서 차차 언어를 배우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과 의미를 소통하면서 상징계(symbolic order)에 진입한다. 상징계에서는 주로 초자아(super ego)가 작용한다. 즉 초자아가 하는 일은 리비도(libido)적⁶⁾ 욕망을 억제하여 인간 주체가 상징계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단계에서 형성된 자아의 정체성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체는 일생 동안 상징계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제의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문자언어, 이미지, 음식, 토속문화, 패션 등 다양하다. 옷은 입는다는 기능, 신체의 형태를 일정하게 패턴화 해주는 기능에 의하여 정체성을 표상하게 된다. 그러나 옷을 입는 주체가 수동적으로만 의복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적 표상물과 정체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주체는 표상물의 의미를 스스로 해독하고 수용하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작용을 한다.⁷⁾ 이것이 개별적으로는 옷을 고른다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맞춰 입는다던가 하는 선별, 조합의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는 특정한 시대의 유행이나 트렌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의복과 정체성의 표상은 동시대의 이미지라는 공시적인 축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이라는 통시적인 축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J. C. 플뤼겔은 “위대한 남성의 체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옷과 현대적인 조망체계(scopic regime)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이전에 비해 18세기 이후로는 남성성의 표상은 점차로 의복을 간소하게 입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남성 주체가 가지는 시각성(specularity)과 노출적 경향은 남성의 상대인 여성에게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의복이 일방적으로 주체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 주체는 끊임없이 사회, 문화적 층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간다. 즉, 사회에서 부과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항상 체크하고, 그 간극을 좁히려는 것이 의복을 통하여 신체와 주체를 치장하는 활동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체는 상징계가 부여하는 의복의 의미, 즉 정장-근엄함, 교복-규율, 작업복-능률, 파티복-화려함, 스포츠웨어-활동성 등으로 부과되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며,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의미를 거부하기도 한다. 즉, 주체는 의복을 통해 부과되는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 이것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의 기호학에서 개인언어(idiolect)라고 했는데, 이는 사투리(dialect)의 개별화된 차원이다. 즉, 표준말이 지방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듯이, 기호의 어휘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⁹⁾

따라서 같은 의미가 부과된다고 해도, 그것이 똑같은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즉, 상징질서가 부과하는 의미의 체계를 주체가 해석하는 쪽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주체설정의 효과를 전혀 따르지 않는 개인도 있다. 사회의 이단아(maverick)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들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주체설정의 작용도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며, 그것이 부과하는 틀로부터 필연적으로 빠져 나오는 인자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것은 체제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서, 아니면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 생겨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을 사회 속에서의 주체로 설정해 주는 체계는 항상 그러한 주체설정의 효과에 맞서는 저항을 필연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데, 후세인 칼라얀의 경우도 사회와 문화가 의복을 통해서 부과하는 주체설정의 효과를 빗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단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체주의의 수용 : 건축

이러한 칼라얀의 해체주의적 경향의 옷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에서의 해체주의의 수용과 그의 건축적 표현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근대 이후 예술에서의 공간과 가시성의 해체는 무엇보다도 건축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족적을 남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 중에서 건축이 가장 공간과 가시성의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해체주의가 출현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이 규정해낸 공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드러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의 『포스트모던 문화』의 다음과 같은 인용에서도 드러난다. “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처한 상황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대상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혹은 정확하게 공식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매스터 언술에 있어서는 결코 모더니즘과 그 계승자간의 관계에 대한 순수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증상에 대한 이야기 과정이 된다.”¹⁰⁾ 여기서 말하는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증상’이란 것이 바로 모더니즘적 건축물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즉, 바우하우스 이래로 건축물에서 장식성이 사라지고 극도의 기능주의를 추구하게 된 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규격화된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모더니즘 기술적 언어가 지닌 비인간적 균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혼성적 언어로 이행”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¹¹⁾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건축물을 지배하고 있던 균일성과 단순성으로부터 혼성,

복합적, 이원적 코드로 이행해 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찰스 젡크스(Charles Jencks)가 분명히 밝힌 것이며, 렌조 피아노(Renzo Piano), 프랑크 게리(Frank Gehry),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 데니스 스캇 브라운(Denis Scott Brown) 등 건축가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의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직육면체의 형태를 피한 부정형, 장식적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건물의 형태에 개입시킴으로써 건축물의 공간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선 또한 다양하고 복잡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공간과 가시성의 해체는 건축활동의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맥락에서 연출해내는 것이므로 특정한 지배양식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단일한 코드가 제시되지는 않는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칼라얀의 복식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Ⅲ. 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에 나타난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

1.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

칼라얀의 옷에서 설정되어 있는 공간의 형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의 건축에서의 공간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의 형태가 기존의 수직, 수평의 교차와, 여기서 생겨나는 정형화된 사각형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¹²⁾ 이것이 바로 칼라얀이 그의 의복을 통해서 연출해내는 공간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¹³⁾ 해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포스트모던적 건축에서의 공간은 근대의 전통이 만들어낸 건축적 구조에 대한 탈구축의 시도인데, 건축물은 단선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다중적이고 탈기능적인 면을 띠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라얀의 옷도 소매, 넥라인, 햄라인 등 옷의 각 부분을 탈기능화 시키고, 다중적인 구조로 만들으로써 새로운 조형적, 신체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칼라얀의 옷은 의복과 건축물간의 유사성을 최대한도로 의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칼라얀이 만들어내는 옷의 공간이 가지는 효과는 신체가 의복에 의해 규정되는 방식을 바꿔 놓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치환(displacement)과도 비슷한 것이어서, 꿈 속에서는 현실에서 생각했거나 본 요소들이 제멋대로 바뀌어 나타났듯이, 칼라얀의 옷에서는 상식적으로 소매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fig.1), 칼라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엉뚱한 요소들이 붙음으로써 치환되어 버린다(fig.2)(fig.3).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최근 들어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옷이 끝나는 부분의 처리를



<fg.1> '98 S/S
www.firstview.com



<fg.2> '99/00
F/W Collection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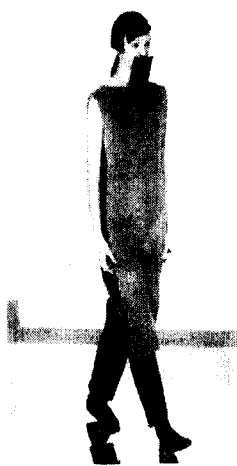


<fg.3> '99 S/S
Collezioni N.68 p.56

과장하거나 비상식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는 햄라인이 열려 있지 않고 닫힌 상태로 처리되어 있는 원피스 드레스(fig.4)(fig.5), 어깨의 봉재선과 어깨선이 어긋나 있는 원피스 드레스(fig.6), 어깨 끈을 포함한 옷깃이 원피스 안감으로부터 분리되어 허리선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걸감과는 일체를 유지하고 있는 원피스 드레스(fig.7), 지나치게 밑으로 길게 파져 있는 암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원피스 드레스(fig.8) 등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고에서는 탈구조적 공간(deconstructed space)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칼라얀 옷에서의 탈구조적인 공간은 옷을 입는 주체가 옷에 의해서 대접받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장에서 논의한 의복과 정체성의 관계가 추상적이고 고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의복의 각 부분이 옷을 입는 신체를 규정해내는 맥락과 기능은 의복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칼라얀의 옷의 탈구조적 공간은 편안함을 불편함으로 치환해 버리고, 심미성과 장식성을 비정형성으로 치환함으로써 옷 속의 신체 자체를 전혀 다른 맥락에 놓는다. 예를 들어 소매 대신에 손이 나올 수 있는 구멍만이 있는 옷의 경우, 팔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다(fig.9). 또한 소매의 길이가 정상적인 소매보다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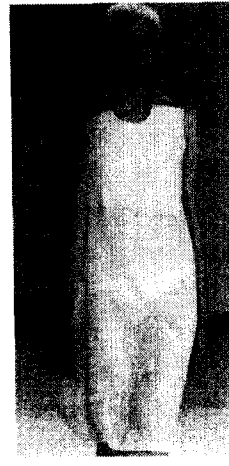
배 이상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도, 손은 소매 속에 파묻혀 버리므로 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fig.10).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신체는 더 이상 주체는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옷이라는 시각적, 물질적 기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¹⁴⁾ 따라서 칼라얀의 옷에서의 탈구조라는 것은 단순히 의복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의복에 의해 규정 당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그러므로 이제 칼라얀의 옷에서의 탈구조성은 의복 자체의 맥락을 떠난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어져 왔던 근대의 인간은 칼라얀의 옷을 입음으로써 더 이상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신체는 의복이나 다른 여러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많은 사물들 중의 하나이며, 이제까지 부여받아 왔던 의미상의(semantic) 특권을 빼앗겨 버린다.¹⁵⁾ 의복의 편리함이나 장식성은 그러한 의미상의 특권을 이루는 중심적인 요소들이었다.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사라짐으로써, 칼라얀의 옷을 입는 신체는 자신을 독특한 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터전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 의미상의 특권은 무엇보다도 의복에 의해 설정되는 공간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칼라얀의 옷은 그 공간을 해체함으로써 그것을 없애 버린다.



<fig.4> '98 F/W
Collezioni N.65 p.54



<fig.5> '98 F/W
Collezioni N.65 p.54



<fig.6> '99 S/S
Collection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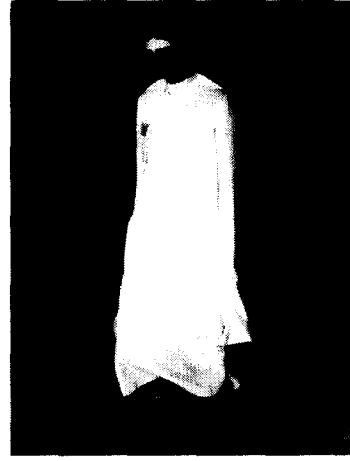
<fig.7> '99 S/S
Collection p.29



<fg.8> '98 S/S
Collezioni N.62 p.84



<fg.9> '98 S/S
www.firstview.com



<fg.10> '98 S/S
www.firstview.com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라얀의 옷이 그것을 입고 있는 신체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신체와 의복이 서로 우위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이제 옷이 신체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옷은 신체에 의지하고 있고, 신체는 옷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예로 들은 옷에 있어서, 손은 더 이상 소매에 의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며, 오히려 구속당하고 만다(fig.9). 또한 변형된 스커트의 헴라인에 둘러싸인 다리도 구속당한다(fig.4)(fig.5). 아니면 암홀이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도 그 큰 공간에 의해서 손이나 팔이 더 자유로워졌다기보다는, 기존의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맥락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게 되므로 탈맥락화(decontextualize)되어 버린다(fig.8).

따라서 그러한 탈구조적 공간에서 신체의 일부 분. 혹은 누드의 전체가 나온다고 해서 칼라얀의 옷이 예로틱한가 아닌가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의복의 구조적 기능에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연상작용에 의한 기의(signified)를 덧붙이는데는 별 흥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옷은 순수한 기표(signifier)이다.¹⁶⁾ 오히려, 그의 옷의 기의는 그가 옷을 통하여 옷 입기, 옷을 통해 안과 밖을 가르기, 옷을 통해 신체를 보여주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다. 앞서서 의복과 건축물의 유사성을 잠깐 언급했지만, 그 근본적인 유사성은 둘 다 안팎을 가르는 기능, 즉 포함과 배제의 원칙 아래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건축물은 그 안에 특정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요소는 인간과 사물을 다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과 사물은 그 건축물의 기능, 의미, 구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걸러진다. 예를 들어 학교 건축물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을 위한 도구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는 다른 기능에 종사하는 요소는 들어갈 수 없다. 병원의 건물에는 병원의 기능에 걸맞은 것만이 들어간다. 이때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함은 배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의복도 마찬가지로 의복의 특정한 기능과 맥락에 맞는 요소만을 그 안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성을 위해 디자인된 옷에 남성은 들어갈 수 없고, 작업을 위해 디자인된 옷에 작업할 수 없는 신체는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옷감이라는 층(layer)은 신체와 외부를 가를 뿐 아니라,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 의미 있는 요소와 의미 없는 요소를 가른다. 그것이 근대의 공간이 옷에 부과한 의미이다. 거기에는 항상 단일성과 통일성이 중요한 원칙이 된다. 즉, 근대적인 규율원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경

계의 안쪽에는 단일한 원칙에 의해 걸리진 요소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의 영역이건, 예술의 영역이건, 행정, 군사, 경찰의 영역이건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근대적 규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의복도 그러한 원칙에 종속된다.

그러나 칼라얀의 옷에서는 그러한 경계설정과,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미가 무효화된다. 그것은 근대성이 서양의 주체에게 부과한 단일성(homogeneity)과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공간에 대한 회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옷에서는 의복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으며, 하나의 옷은 단일한 레이어로만 되어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앞판을 여러 겹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옷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옷의 어느 층위가 외부와 신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도록 하고 있다(fig.11). 스커트 뒷부분의 헴라인 안쪽을 여러 겹의 레이어가 채우고 있는 스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fig.12). 이러한 스타일은 또한 동시에 옷은 껴서 입는다는 개념을 옷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옷에 팔이나 다리, 몸통을 꿰어 입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옷이 설정한 경계의 안쪽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옷이 설정하고, 옷을 입는 사람이 동의한 경계를 다른 장소에서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칼라얀의 옷에서는 이러한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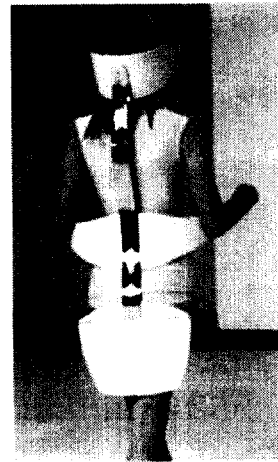


<fig.12> '99/00
FW Collection p.36

한편, 이제까지 논의한 것은 옷의 형태라는 측면에서의 단일성에 대한 의문제기였으며, 칼라얀은 의복의 소재라는 측면에서도 이질성(heterogeneity)의 요소를 삽입하고 있다. 어떤 옷에서는 천으로만 되어 있는 옷의 단일성을 벗어나,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목받침, 팔걸이, 쇠로 된 프레임 등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개입시키고 있다(fig.13). 이러한 요소들의 개입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옷 자체가 형질, 실, 단추 등



<fig.11> '99 S/S
Collection p.25



<fig.13> '99 S/S
Collection p.34

전형적인 재료로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재료든지 옷의 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다분히 전위적인 입장을 표방하게 된다.

이제까지 기술한 요소들에 따르면, 다음에서 있을 의복의 가시성에 대한 논의는 탈구조적 공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그 예로, 도판 1과 17, 그리고 도판 10과 16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성은 탈구조적 공간 속에 전개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2. 의복과 가시성(visibility)

칼라얀의 옷이 만들어내는 탈구조적 공간을 살펴 보면, 그가 옷을 통해 분명히 옷과는 다른, 옷을 초과해 있는 층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층위란 의복이 우리에게 신체를 보이게도 하고 안 보이게도 하는, 가시성(visibility)을 조절하는 측면이다. 즉 의복을 통해 어떻게 신체가 보이는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의복의 개념은 신체의 가시성을 조절하는 도구이자 장소로서의 옷, 신체를 다른 사물과 매개하는 역할로서의 옷, 내부와 외부의 구획을 짓는 경계선으로서의 옷을 포괄한다. 옷은 신체의 특정한 국면을 보이게 하고, 어떤 국면은 안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정장(formal wear)이 정장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신체의 선을 감춤으로써 신체의 이미지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에로틱한 연상작용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체의 가시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신체가 어떻게 보이도록 하는지를 새롭게 연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의복은 걸으로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데 그 효과는 과시, 심미성, 공포, 친밀함, 지겨움, 역겨움, 권위, 효율, 동정심에의 호소 등 다양하다.¹⁷⁾

칼라얀은 옷을 통해 신체의 가시성을 조절할 뿐 아니라, 옷에 던져지는 시선을 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변형시킨 소매나 스커트의 햄라인은 기능적으로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해지는 시선을 불편하게 만드는(discomforting)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개 소매나 칼라, 스커트나 팬츠의 햄라인 등 옷의 끝자락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옷으로

부터 그 안쪽에 있는 신체에로 초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정장은 신체로 기어 들어가는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정장에 따라 다니는 기의(짐작음, 공식성, 지위, 품격)를 획득한다. 그러한 시선의 조절은 옷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복의 공간과 일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칼라얀의 옷은 그러한 시선 자체를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시선을 이탈시키거나 방치해 버린다. 칼라얀은 이를 위해 다양한 시각적 수사(rhetoric)를 쓰고 있는데, 변형된 소매나 칼라, 암홀 등이 그것이다. 소매 밑으로 길게 파여진 타원형의 암홀은 거의 가슴에서 힙까지, 그리고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신체의 선을 드러내주므로 일단은 에로틱해 보이지만 소매와 등판이 연결된 독특한 공간적 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지 못하고 옷의 안과 밖의 어디선가 떠돈다(fig.8). 이는 칼라얀이 신체가 의복에 의해 규정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재구성하고 싶어한다.¹⁸⁾

한편, 의복과 정체성의 관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형성된다고 했듯이, 의복을 통해 드러나는 신체의 가시성도 특수한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칼라얀의 옷은 신체를 추상적인 형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랍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상체에는 변형된 차도르를 씌우고 아래는 누드로 놔둔 의상과, 얼굴만 마스크로 가리고 나머지 신체 전체를 누드로 놔둔 의상을 선보이고 있는데(fig.14), 이는 아랍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차도르를 씌움으로써 공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내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금기의 전통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랍 여성이 쓰는 차도르는 분명히 햇볕을 가린다는 기능적인 면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랍의 남성에게는 그토록 철저하게 신체를 은폐하고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의복의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예를 통해 정숙성을 강조한 문화적 코드는 신체의 노출로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칼라얀은 차도르의 변형된 형태를 통해,



<fg.14> '98 S/S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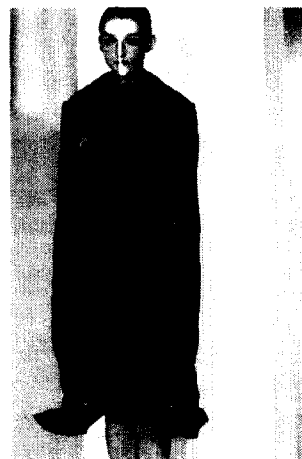
아랍의 옷 입는 문화적 관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차도르는 신체의 선을 완전히 억제하는 반면, 칼라얀이 디자인한 변형된 차도르는 얼굴이나 가슴의 윤곽을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fg.15). 즉, 칼라얀은 의식적으로 기존의 문화적 관습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자신의 옷에 차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해석적 관점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차도르의 형태를 닮은 흰색의 옷은, 신체의 선을 완전히 감춰서 신체를 탈신체화하는 전통적인 차도르와는 달리, 얼굴과 어깨의 윤곽 등 신체의 선을 강조

함으로써 차도르가 억압하고 있는 메시지를 되살려 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신체의 선이 에로틱하지는 않다. 칼라얀이 모델의 상체에만 차도르를 씌우고, 아래는 완전히 나체로 놔둔 것도 나체의 에로틱한 연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옷 입음/입지 않음의 차이를 강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언어기호에서 어떤 음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구조와 비슷하다. 기호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칼라얀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 소쉬르(F. Saussure)와 매우 밀접하다.¹⁹⁾ 문자기호와 마찬가지로, 의복은 전체적으로 기호적 요소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에 근거하여 기능과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소매 있음/없음, 길음/짧음, 칼라 있음/없음 등 옷의 각 부분에 관하여 끊임 없이 생겨날 수 있는 대비의 쌍들은, 마치 언어기호가 음절들간의 대비의 쌍들에 의하여 아/어, 나/너 의미를 가지듯이, 의복의 의미를 생성시킨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성된 의미들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거부하고, 강조하고, 삭제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작용을 함을 말하는 것이다. 칼라얀의 차도르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엄청나게 소매가 긴 옷도 다분히 연극적이고 작위적이지만 의복의 의미기능에 대한 또 다른 반향으로 볼 수도 있다(fig.16). 즉 모든 옷에 있어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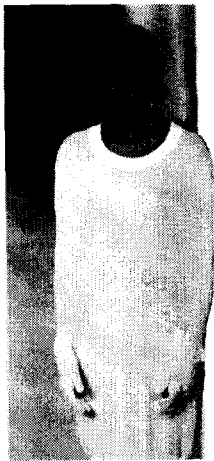


<fg.15> '98 S/S
www.firstview.com



<fg.16> '98 S/S
www.firstview.com

이나 팔 혹은 그것의 기능적인 대체물인 장갑이라도 보이는 것이 상식인데, 소매가 긴 옷에서는 손도 팔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옷을 통해 신체의 일부로서의 손을 인식하는데 혼란을 가져온다.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의 손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과연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혼란이며, 바로 가시성의 혼란인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형태가 소매 끝이 장갑이 되어 버린 옷의 경우인데, 여기서는 신체의 선이 거의 억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손의 형태만이 드러나 있다(fig.17). 이 경우에 손은 더 이상 신체의 일부로서의 손이 아니라, 옷의 일부로서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도 손은 탈신체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칼라얀은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손이 변형된 소매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손이 인체의 특정부분으로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고 파악하는, 앞서 말한 특권화된 기표로서가 아니라, 인체라는 기표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표들 중의 하나로 전략하고 만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가시성의 창출로 이어져,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보여지는 신체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fig.17> '98 S/S
www.firstview.com

3. 후세인 칼라얀의 의복에서의 해체주의의 수용

앞서 건축에서의 탈구조적인 측면에 대해 전술했으나,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의 경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칼라얀의 옷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이는 소통의 구조로서의 건축과 의복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때 소통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축이나 의복이라는 구조물의 안과 밖, 중심적 요소와 주변적 요소 사이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 소통의 배제를 통한 절대적 구조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탈모더니즘 건축은 건물 자체와 그 바깥의 요소들, 즉 길거리, 간판, 사람, 교통수단 등과의 복합적인 소통을 특징으로 한다. 칼라얀의 옷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에서 모더니즘적 형태가 해체되는 경로를 살펴보겠다.

건축에 있어서 탈구조성, 혹은 해체주의의 경향은 탈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것은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젱크스였다. 그는 모더니즘적 건축과 그 이후의 탈모더니즘적, 해체주의적 건축간의 구분을 일가성(一價性: univalence)의 포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가성이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서 시작된, 단순한 수직선과 직육면체라는 보편화된 형태로 수렴되는 건축적 특징이다. 그것은 또한 서구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 국내의 경우는 1980년대까지의 건축을 지배해온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한 건축물의 기하학적 완벽성은 마치 모더니즘 회화가 그러했듯이, 순수한 물질성, 순수한 형태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배제와 환원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모더니즘 건축물은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제적이며, 건축은 오로지 건축일 뿐이라는 식의 생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면, 탈모더니즘적 건축은 형태와 기능의 일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가성을 거부하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건축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지칭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로버트 벤틀리와 데니스 스킷 브라운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로버트 벤틀리는 그의 저서, 『Learning from Las Vegas』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그 맥락에 따라 읽히고 번역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불러 일으키려고 했으며,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길가에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간판들이 건축물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길거리에서 찾았다.³⁰⁾ 찰스 쟁크스는 이를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향한 건축이라고 보고 있다. 즉, 극도로 단순화되고 외부와 단절된 형태를 가진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탈모더니즘 건축은 내부와 외부, 형태와 의미 사이의 구분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한가지 이상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건축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모더니즘 건축이 될 수 있는 의미의 방식은 위에서 말한 일가성으로부터 다가성(multivalence)으로의 이행이다. 그것은 차이와 복수성(multiplicity)이라는 혼성적인(hybrid) 언어를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후세인 칼라얀의 옷이 탈모더니즘적 건축과 비교될 수 있다. 그의 옷은 그 이전까지의 의복을 규정하던 절대적인 기능성, 즉 소매는 소매이어야 하고, 칼라야는 칼라이어야 하는 필연성에 과감하게 도전한 것이다. 여기서 과감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은 의복의 기능상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고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같이 보이지만 소매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칼라같이 보이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보인다는 특성은 위에서 건축에 대해 언급한 모더니즘 건축의 일가성으로부터 탈모더니즘 건축의 다가성으로의 이행처럼,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의복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의복의 기능성을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빼앗긴 기능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건축에서의 탈모더니즘에 대해 전술한 소통의 가능성처럼, 옷 외부의 다른 부분과 옷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칼라얀의 옷은 그저 신체를 감싸고 있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대화하고, 혹은 이제까지의 의복에서 신체와 대화하던 의복의

부분을 차단하기도 하여, 다양한 의복의 언어를 연출해낸다. 평자들이 칼라얀의 옷을 건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그가 의복의 구조를 건축처럼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복의 구조와 건축적 구조와의 비교는 단순히 형태적인 유사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의복이 소통과정을 통해서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하는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우리는 의복과 가시성, 의복과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 의복의 형태와 형식에 대한 연구는 복식사의 영역을 넘어서 폭넓은 인문학, 예술의 담론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V. 결 론

이제까지 의복의 공간과 정체성이라는 이론적 배경 아래 후세인 칼라얀의 옷을 분석하였다. 이는 그가 자신의 디자인에서 창출하는 탈구조적 공간의 의미로 우리들을 끌어들이며, 의복이 신체를 표상하는 문제, 즉 가시성(visibility)의 문제로 귀결됨을 보았다. 칼라얀이 디자인한 옷들의 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들이 어떻게 신체가 놓여지는 공간을 재규정하고, 신체가 보여지는 방식을 바꿔 놓았는지가 드러났다.

그것을 옷 입는 주체의 정체성의 표상이라는 차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을 때, 칼라얀에게 있어서는 옷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선형적 주체를 반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는 의복을 통한 신체의 규정을 매개로 비로소 구성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한 인식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의 제기에서부터, 옷을 통해서 신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의복의 기능에 대하여 당연시되어 왔던, 의복의 안팎을 가르는 경계설정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칼라얀의 옷은 모든 사고와 실천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탈근대적 사고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러므로 복식에서의 해체주의적 경향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는

의복의 형태가 해체됨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인문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근대적 의미생산체계 자체의 해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데리다가 문제삼았던 글쓰기와 논리중심주의의 관계의 해체일 수도 있고, 라캉이 말한 통일되고 일관된 의식을 가진 인간 주체의 해체일 수도 있으며, 과학적 진리의 이름으로 담론의 권력을 행사하는 근대적 지식의 제도들의 해체일 수도 있다.²¹⁾ 철학이나 비평이론 등 인문학에서의 논의가 흘러 넘쳐, 예술과 다른 인간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칼라안의 의복이 그러한 복합적인 탈근대의 상황 속에서 해체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을 다시 요약한다면, 신체 각 부분의 가시적 의미가 바뀌는 탈신체화, 의복의 공간이 변형되는 탈구조화, 그에 따라 옷을 입는 주체의 정체성이 다르게 설정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칼라안은 의복이 인간 주체의 사고와 행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복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김주영 ·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 김주영 ·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2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1), 1998.
- 김지연 · 전해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복식, 32호, 1997.
- 롤랑 바르트, 김인식(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8.
- 롤랑 바르트,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역), 모드의 체계, 동문선, 1998.
- 박현신, 카오스 · 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작품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1998.
- 윤효녕 · 윤평중 · 윤혜준 · 정문영, 주체개념의 비판. -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영준, 나는 아줌마가 싫어요, 오형근 사진개인전 카탈

- 로그 서문, 1999.
- 이정후 ·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cy). 복식, 45호, 1999.
- 자크 라캉, 민승기 · 이미선 · 권택영(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2.
- Ellie Ragland-Sullivan, Lacan and the Subject of Language. New York: Routledge, 1990.
- Griselda Pollock, Vision and Difference. -Femininity, Feminism, and Histories of Art-, London, New York: Routledge, 1988.
-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 John Tagg, Ground of Dispute. -Art History, Cultural Politics and the Discursive Field-, London, Macmillan an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 Kaja Silverman,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London: Routledge, 1992.
- Slavoj Zizek,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 New York: Routledge, 1992.
- <http://www.firstview.com/designerlist/HusseinChalayan.html>
- <http://www.papermag.com/stylin/fall98women/tse/eINFR.html>

- 1) Michael Kelly, [ed.] Encyclopedia of Aesthetic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7
- 2) 김형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9.
- 3) Crary, Jonathan, Techniques of the Observer : On Vision and Modern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0.
Jonathan Crary, Techniques of the Observer, Cambridge, MIT Press, 1992.
Martin Jay, Downcast Eyes : The Denigration of Visi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Though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4)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섬세하다든가, 남자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여자는 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장한 다양한 기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꾸밈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신토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정체성을 대체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표(privileged signifiers)들이다. John Tagg은 Grounds of Dispute : Art History, Cultural Politics and the Discursive Field, London :

- Macmillan and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에서 어떤 특정한 기표를 특권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 5) 이것이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으로 남는 이유는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와 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형태로 불일치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가는 자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위의 책, p.40.
 - 6) 성충동.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인간의 욕망을 촉발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보고 있다.
 - 7) 사진 이미지에 나타난 의복에서도 개인이 정체성을 표상하는 방식은 잘 드러난다. "정체성이란 것을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자기가 남들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미지라 하여 꼭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고 목소리나 말, 행동, 풍기는 냄새도 자기의 정체성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기를 즐긴다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은 저 깊은 속 어딘가에 자신이라는 본질이 있어서 그것이 얼굴에 반영되고 패션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 혹은 표상에 의해 구성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자신과 남이 인정해 주는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오형근이 사진으로 아줌마의 표상들—웃, 표정, 화장, 주름, 장신구—을 찍었으면 그것이 아줌마의 정체성이다. 결국 자신의 이미지란 내가 남과 교환하고 남에게서 인정받는 어떤 것인데, 정체성이란 바로 그러한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영준 "나는 아줌마가 싫어요" 오형근 사진개입전 카탈로그 서문, 1999.
 - 8) J.C.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Hogarth Press, 1930, pp.117-19. Kaja Silverman, "Fassbinder and Lacan: Reconsideration of Gaze, Look, and the Image,"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London: Routledge, 1992, p.153에서 재인용.
 - 9) 개인언어와 기호의 해석의 다양성과 복수성에 대해서는 롤랑 바르트저, 김인식 역, "이미지의 수사학",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8, 참조.
 - 10) 『포스트모던 문화』 스티븐 코너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한신문화사, 1997, p.92.
 - 11) 같은 글, p.92.
 - 12)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스페인의 빌바오에 세워진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건물에는 직선이란 없으며, 모든 형태는 비정형화된 곡선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에서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워조차도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형태를 하고 있다.
 - 13) "키프러스 출신으로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후세인 칼라얀은 TSE사를 위한 컬렉션을 처음 선보였는데, 아주 멋진 것이었다. 칼라얀은 자신의 전복적(顛覆的)인 논리를 반영하는, 믿을 수 없는 모헤어와 캐쉬미어 니트를 들고 나왔다. 목선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솔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열려 있었으며, 목직한 스웨터에 달린 섬세하고 높은, 거미줄 모양의 칼라란 턱과 입을 감쌌다. 이런 작품들은 콜렉터를 위한 품목이다. 이런 예술가가 그러한 상업적인 회사를 위해서 오래 디자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킵 헤스트라이터, <http://www.papermag.com/stylin/fall98women/tse/tseINFR.html>
 - 14) 윤효녕, 윤평중, 윤혜준, 정문영 저, 주체개념의 비판-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제3장 "라캉: 정신분석학과 개인 주체의 위상 축소" 참조.
 - 15) 인간의 신체에 부여된 의미상의 특권이란, 신체의 이미지를 가운데 놓고 다른 사물들을 주변이나 배경에 배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던 서구 회화나, 인간의 신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전개되어 온 소설이나 드라마의 내러티브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더군다나 서구의 근대체제의 출현 이래로, 인간의 신체는 합리성의 이름으로 다른 모든 사물들을 통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특하고 높은(sovareign)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식의 논리는 인간의 신체가 이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되어 온 철학적, 문화적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 16) 의복을 상징질서의 일부로서 볼 때, 주체가 상징질서에 편입할 때 성적 욕망을 억제하므로, 문화적 의미 체계의 일부로서의 의복은 필연적으로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근대의 의복 디자인은 다양한 편차는 있지만, 성적 욕망을 조절,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칼라얀의 의복을 해체주의적 경향에 입각하여 본다고 해서 그의 의복이 직접적으로 신체의 에로틱한 면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기의가 제거된 기표로서의 의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칼라얀의 의복이 실사 에로틱한 연상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그가 의복과 신체의 성적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의 의복에서의 에로틱한 이미지는 신체를 둘러 싸고 구현되고 있는 가시성을 조절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 17) 문화 전반, 특히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미술사를 통해서 가시화되는가에 대해서는 Griselda Pollock, Vision and Difference : Femininity, Feminism, and Histories of Art.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88, 참조.

- 18) 옷이 신체의 모양을 어떻게 가시화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진가 오형근이 아줌마를 찍은 사진작업에 대해 이영준이 쓴 글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왜 옷의 모든 장식들은 목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가? 남자들의 양복은 참으로 이상한 갈등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양복의 가장 중심적인 기의(記意; signifier)는 ‘예의’인데, 그 예의는 바로 목을 꼭 조임으로써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와이셔츠의 맨 윗단추를 땀으로써 활동성에 제약을 가하고, 그리하여 양복이라는 옷은 경망하게 움직이거나 뛰어들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점잖게 앉아서 ‘으흠’하고 무개를 피우는 옷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양복은 신체의 감각적인 부분을 가림으로써 예의라는 기의를 획득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복에서 가장 감각적인 부분도 바로 그 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그런데 아줌마 사진의 목 주변 장식을 보면 방어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유혹의 메시지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중략] ... 실크로 된 칼라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그것과 형태가 비슷한 칼라가 달린 코트를 걸친 다소 젊은 아줌마는 목걸이도 여러 개의 장식들이 달린 화려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의 모든 의미는 목둘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한복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복은 서양 옷에 비해서 대체로 금욕적이지 않지만, 흰색 한복을 입은 아줌마의 꽃무늬로 장식된 깃은 목둘레를 그냥 놓아주고 있지 않다.” 이영준, “나는 아줌마가 싫어요.” 오형근 사진개인전 카탈로그 서문, 1999.
- 19)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고, 기호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호들 간의 차이(difference)일 뿐이지, 기호 자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후 차이에 대한 소쉬르의 논의는 데리다나 라캉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 와서는 문화의 영역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을 다루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 20) Steven Con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Oxford, Basil Blackwell, 1989, p.70.
- 21) Jonathan Culler는 *On Deconstruction*에서 해체주의가 서양의 근대가 세워 놓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자세히 쓰고 있다. 그는 특히 데리다가 주장한, 의미에 있어서 현존(presence)의 부정, 즉 어떤 기호에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제되는 것은 차이일 뿐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해체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의복에 적용한다면 의복의 의미는 개별적인 옷 하나하나에 있다기보다는 마치 언어기호의 집합체로서의 단어와 같이, 옷과 옷 사이에 존재하는 양식적, 형태적, 기능적, 수용적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